

“지는 것 두려워말고 즐겨라 그것이 프로의 길이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 특강

신문선 명지대정보과학원 교수(前 MBC·SBS 축구해설위원)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에서 '나의 축구인생과 삶'을 주제로 12월 13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신문선 교수는 축구계 부패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축구인생과 수많은 좌절과 극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축구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에 20년간 글을 써왔고,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면서 한국체육회를 향해 쓴 소리와 부정부패에 맞서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쓴 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평생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체육계, 특히 축구계의 부정부패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축구는 최근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광래 대표팀 감독 경질만 보더라도 대표팀 감독의 경질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 감독은 저에게 "조기축구감독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광래 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표팀 감독이 인격적으로 존중 받지 못하는 한국축구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광래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면서 후임감독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축구협회의 답답하고 안일한 처사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한국축구는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고 이용당하는 부패가 가슴이 아픕니다.

축구는 국민 화합의 문화콘텐츠

축구는 거대한 사업이고 국가의 오락적 영역 또는 애국의 도구로써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축구는 20년 넘게 꽃만 따오고 있습니다. 꽃만 따오고 있다는 뜻은 대표팀에 모든 것이 집중돼서 대표팀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축구는 뿌리가 썩고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승부 조작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60여 명의 축구 선수들이 웃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소중한

정신인 정정당당한 승부를 뒤로 한 채 돈을 매개로 한 거래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부조작이 올해에만 일어난 국한된 사건일까요? 이미 승부조작은 2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 주전선수를 빼거나 일부러 쳐주는 것이 한국축구계의 악습이었습니다. 이런 악습을 누구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 악습을 이용해 대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축구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악습 때문에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중병에 걸린 한국축구는 머지않아 아시아에서 삼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축구팬들이 축구를 소비하지 않고 축구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축구가 병들게 되면 단지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축구 그 자체였습니다. 20년 넘게 축구의 대중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안일한 처사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한국축구는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고 이용당하는 부패가 가슴이 아픕니다.

2002년 월드컵과 비슷한 이벤트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2월드컵에서 우리는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선수들의 선전으로 국가 이미지와 한국 상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구는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도구로써 그 힘은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페인 축구명문 레알마드리드 마케팅 담당자에게 "레알마드리드와 바로셀로나는 해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매년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표는 늘 매진될 정도로 구단의 인기는 높다. 그래도 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세계 최고 선수들을 끌어 모으는 이유는 스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버리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국축구가 병들고 지친상태에서 제대로 무너진다면 축구의 사회통합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부패한 축구계에 좌절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축구를 비판하며 '쓴 소리꾼'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저는 어느 날 큰 형이 가져온 신문에 정부가 설립하는 특수학교 신입생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지원해 체육중학교에 입학했고, 육사와 같은 엄격한 환경 속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입학생 210명 중 졸업생은 121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제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활은 고교 3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국에서 삼관왕을 했는데 체육학교가 시험에 나가면 운동장에 2-3만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부하는 축구선수'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교 시절을 거치면서 갖게 된 생각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명문인 연세대 축구팀에 들어갔으나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꿈과 경험, 노력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세대는 대한민국 최고선수들의 집합지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의 뒷새로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제 꿈이었던 대표선수도 실력보다는 돈과 배경이 있는 선수들이 선발되는 것을 보고 크게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대학생활도 중고교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수업에 들어가면 연습을 게을리 한다며 선배들에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학교를 한 달간 가지 않은 채 부패에 가득 찬 축구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대 원로선배님들이 저를 찾아와 설득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은 "축구를 그만두면 인생에서 지는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나의 축구인생과 삶'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정 당당히 경기를 하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했다.

축구는 국민 하나로 만드는 콘텐츠 이해관계 따라 저주는 오랜 악습 축구의 부패지수 사회와 일치해 축구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져

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격려에 힘을 얻은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젊음과 낭만을 뒤로한 채 치열한 고민 속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1981년 프로팀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좌절을 겪으면서 저는 내가 훗날 축구계에서 힘을 갖게 되면 돈 없고 배경이 없어도 능력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의 쓴 소리꾼으로, 체육계의 독실가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짐은 프로팀 선수로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 체육학교를 다닐 때 "너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했으니 나중에 네가 받은 혜택을 선생이 돼서 후배들에게 꼭 돌려줘라"는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선수 활동 중인 1984년 연세대학교대학원에 진학했고 학위를 마치기 위해 1985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프로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 팀에 가든 늘 주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외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86서울아시아게임'이 시작됐고 방송 인력이 부족하다며 스포츠원고를 써달라는 MBC의 청탁으로 축구관련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돼 방송 축구해설가가 됐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축구였고 축구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거름이 될 때도 있었지만 독화살이 돼 날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축구가 건강해지려면 축구를 보는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축구가 건강해집니다. 한국축구의 부패지수는 한국정치, 한국사회의 부패지수와 일치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갖 사회적 부정합 거래를 용인해 왔습니다. 밀실 거래를 했던 사회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축구가 건강해지면 정치와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경기를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자를 위로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을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프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입니다. 결코 게임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승률 높은 프로가 돼있을 것입니다.

신문선 교수는...

대학시절 1979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고 1981년 대우축구단 입단으로 프로 축구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85년 프로 선수를 은퇴하고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들어갔다. 1988년 MBC축구해설위원, 2001년 SBS축구해설위원, 2011년 MBC스포츠플러스 축구해설위원과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탄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종삼색, 코란1개, 팬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공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웁니다.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신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다함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